

보도 일시	2021. 12. 28.(화) 09:00	배포 일시	2021. 12. 28.(화) 09:00
담당 부서	체육국 체육정책과	책임자	과장 정태경 (044-203-3111)
		담당자	사무관 안재민 (044-203-3129)

대한민국 위상을 높인 김영희 선수에게 따듯함을 나누다

- 12. 29. 문체부 장관, 김영희 선수를 만나 위로와 격려의 마음 전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과 함께 12월 23일(목),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회를 열고 지난 1984년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영광의 주역인 김영희 선수(농구)에게 특별보조금 일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황희 장관은 12월 29일(수), 김영희 선수 자택을 직접 방문해 특별보조금을 전달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김영희 선수에게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특별보조금’은 대한민국 체육 발전에 힘쓰고 위상을 높인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체육인에게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체육인 복지사업이다. 특히 이번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김영희 선수는 현역 시절 1982년 뉴델리아시안게임 농구 은메달, 1984년 엘에이 올림픽 농구 은메달,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농구 은메달을 획득했다. 정부는 그 공로를 인정해 지난 1980년과 1984년 각각 체육훈장 백마장과 맹호장을 수여한 바 있다.

그러나 김영희 선수는 1984년 말단비대증 판정 이후 27년째 투병 생활을 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지난 11월 특별보조금을 지원한 한승철 선수(육상, 1958 도쿄 아시아경기대회 2위 등)와

김재용 선수(역도, 2002 아시아태평양 장애인경기대회 1위 등)에 이어 김영희 선수에게 추가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황희 장관은 “이번 지원으로 김영희 선수를 비롯한 세 분이 따듯한 연말을 보내시길 기원한다. 문체부는 「체육인복지법」 제정을 계기로 체육인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체육인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현장 사진(12. 29.) 추후 별도 배포

